

2023 화성시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 2차 회의 결과

□ 문화예술교육 분과 (2023. 5. 30. 14:00 동탄복합문화센터)

구분	내용
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화성예총에서 인문 프로그램(팔탄 전통농요) 6월 진행 예정 · 나래울에서 음악과 힐링의 놀이터 진행 · 이동안 선생 전통 춤 전승교육 중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모니카 지회장으로 하모니카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 방안 모색 중 · 10월 중 화성시 하모니카 페스티벌 예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예술에 대해 자잘한 사업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큰 틀에서 논의하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단 플레이엄 사업 참여 중 · 재단 예술 활동 및 예술교육 수행하고 있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판소리, 공연·교육 활동 중 · 화성시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인프라가 질적으로 미흡하다고 봄 · 경기도 창작예술소에서 전통 국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모르고 있고, 학교가 몰리거나 반대로 비는 기간도 많음 · 예술 쪽으로만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학교 쪽과는 협업이 되지 않고 있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학 전공자로서 일반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음 · 지역 사회에서 시 창작 강의 진행 중 · 문화예술 교육은 시스템 교육에서 느낄 수 없는 끈적함이 있어야 함 · 마음 치유 글쓰기 제안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평생교육관에서 교육 진행해서 공부 중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쉽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 고민 중 · 주민자치회와 문화예술인의 연결 필요 · 돌봄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결 필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디어센터 교육은 교양 수준의 초급 교육으로 이후 중급 코스 부재 · 니즈가 있을 때 등급별 클래스를 만들어서 수요층 확보 필요 · 미디어센터 교육생과 문화예술을 연결하면 창조적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노래 및 가야금 연주자 · 화성교육협력 지원센터 강사 및 초중고 수업 중 · 목동이음터의 경우 음악 관련 장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국악에 대한 장벽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함 ·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행사에 관심 많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으며, 재단에서 축제기획학교 참여 중 · 개인 공간에서 아트 클래스 프로그램을 오픈하여 활성화하고 있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에 역사적인 사건이 많은데 화성에서 돌아보지 않고 있음 · 역사교육 관련 자녀교육을 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 · 화성형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되었으면 함 ·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문화 교육 연계 필요

구분	내용
의제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존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제를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각 위원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을 분담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임 · 화성형 문화예술교육 컨설팅에 집중하거나, 3개의 대주제를 하나로 합쳐서 진행할 수도 있음 · 의제 정리사항 <p>(1) 화성형 문화예술교육 컨설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큰 틀에서 바라보기 :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살펴보기 - 이용자의 시간과 계층 검토 - 영·유아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-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간의 상호 교류 및 통합 - 시민 개개인의 마음 건강과 관련한 문화예술교육 - 문화예술교육이 심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검토 - 미발굴 분야(장르)의 강화를 위한 전략 <p>(2) 신진 문화예술 교육자 양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이 지역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<p>(3)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홍보 전략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청 및 다른 기관과의 통합 홍보망 구축 - 시민 창작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 방안 마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 예술가는 예술가대로, 마을강사는 마을강사 대로 연계협력 중 · 시민이 과연 강사(문화예술교육자)가 되길 원하는지 고민할 필요 있음 · 예산 수립(10월) 이전에 한 개의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집중했으면 함 · 신진 문화예술 교육자 양성이 강사 발굴인지, 시민 안목 확장인지 논의 필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양질의 교육자도 나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민을 교육자로 양성하는 것보다 문화예술인을 심화교육자로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· 다양한 장르의 접목을 통해 문화예술인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 있음
	<p>>> 향후 ‘화성형 문화예술교육 컨설팅’을 정책으로 제안하기로 하되, 단순히 컨설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‘항목’으로 컨설팅을 해야 할지도 분과에서 함께 제안하기로 함.</p> <p>그 세부 ‘항목’은 아래와 같음.</p>

구분	내용
의제 선정	<p>① 이용자의 시간에 대한 문제 → 평일 주간 중심의 프로그램이 직장인, 학생 등의 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</p> <p>② 이용자의 계층에 관한 문제(영유아·돌봄) → 영유아 계층이나 돌봄 프로그램 대상 시민을 비롯해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게 하는 방안 제시</p> <p>③ 학교(교육청)와 시 사이의 경계 완화 및 상호 연계 → 교육청 주관 문화예술교육과 지자체 주관 문화예술교육 간의 부서 경계를 넘는 사업교류, 정보 공유 등의 방안 제시</p> <p>④ 개인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간의 연계 →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개인의 심리 건강의 구체적인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로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심화시킬 방안 제시</p> <p>⑤ 기초과정을 넘어 심화과정에 대한 설계 → 미디어 교육 등 여러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난이도에 대한 검토 후 심화과정 개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</p> <p>⑥ 기존 미 발굴된 영역(장르)의 발굴 → 예술 장르 중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약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</p> <p>⑦ 전문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(기회의 구조 개편) →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가 문화예술 교육자로서 지역사회 안으로 나아오는 데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 제시</p> <p>⑧ 신진 문화예술교육자 양성 → 시민 중에서 문화예술 교육자로 더욱 성장하고 싶은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와 연계해주는 방안 제시</p> <p>⑨ 문화예술교육의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 → 지역 내 모든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대안 제시</p> <p>⑩ 심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홍보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→ 미디어 교육을 받은 시민의 시의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을 직접 생생하게 홍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</p>

□ 청년예술 분과 회의결과 (2023. 5. 30. 19:00 화성시민대학)

구분	내용
예산 확충	· 예술지원센터에 배정된 청년관련 지원 예산이 약 1억 정도인데, 센터 전체 예산액 (14억)에 비해 적은 수치임
	· 문화재단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화성시 청년 카테고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듯
	· 청년 관련 공공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
공모 시스템 개선	· 기획공연·축제·전시 등에서 청년 쿼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· 공모 심사 시, 청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했으면 함
	· 공모사업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함
	· 청년(신진) 예술가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구조가 있었으면 함
	· 청년지원센터의 경우, 사전에 사례교육을 해주고 사업결과에 대한 실적 발표도 진행함 (제출사례가 상위 선정될 시, 컨설팅 지원)
	· 공모 선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면 함(경기도 참고)
	· 상담을 전담하는 기관 자체가 있다면 좋다고 봄
청년 커뮤니티 형성	· 커뮤니티 홈페이지 또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함
	· 기존 재단 플랫폼(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) 활용하였으면 함
기타 의견	· 청년예술단에 실연자 뿐만 아니라, 조명·음향 일자리를 추가 했으면 함
	· 청년예술인의 경우 버스킹을 하러가 해도 악기 대여가 힘들 → 악기 지원만 해줘도 청년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함
	· 교육청을 활용한 아이디어 사업 운영
의제 결정(안)	· 지역 예술가를 위한 공모 지원 컨설팅(상담창구) 지원 · 청년 커뮤니티 플랫폼(카톡·밴드 등 온라인) 운영

□ 공연·전시 콘텐츠(문학)분과 (2023. 6. 8. 10:00 화성시민대학)

구분	내용
의제 논의	· 의제가 너무 많다 보니 압축할 필요 있음
	· 모든 의제에 대해 조명할 필요 있음
	· 유희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적인 활용 측면에서 더 좋음 · 지역 자체 공연이나 행사 추진 시, 공간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	· 시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함 · 밴드·통합예약시스템·맘카페의 경우 정보가 너무 많아 건너뛰는 경향이 있음 ·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분리 필요
	· 서부는 도심지에서 너무 떨어져서 개척해야하는 수준 · 행사정보를 몰라서 못 오는 것이 아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라고 생각됨 ·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강화 필요
	· 홍보 활성화 방안은 다른 분과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예산 활용 행사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조 및 시민의 문화공간 확보 및 사용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으면 함 · 공연·전시 콘텐츠(문학) 분과에서 꼭 논의해야할 의제가 무엇인지 생각 필요
	· 공연을 잘 준비해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 없음 · 홍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
	· 3가지 의제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
	· 시민의 문화공간 확보도 필요하고 시민과 예술을 공유하는 시간 마련을 위해 홍보 활성화도 필요함
의제 선정	· 시민의 문화공간 확보 및 사용 활성화
기타 의견	· 회칙 제12조(분과장단 구성 및 운영) 등 위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의견 제출 예정 · 회의결과 공지 및 공연장소 활용현황 안내 요청

□ 예술지원(장애예술) 분과 회의결과(2023. 6. 12. 10:00 화성시민대학)

구분	내용	
<p>화성시 지역 예술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 논의</p>	<p>주요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첫 진입하는 예술인 대상 마중물 사업이 있고, 그 이후 중앙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· 지원단체 대상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재단 서포트 하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· 공연의 경우 상주단체가 없어서 아쉬운데 상주단체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 필요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모에 선정된 우수 예술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필요 · 화성에 매몰되지 않고 중앙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재단에서 수행 하였으면 함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에서 지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면 예술인 협업이 무척 어려움 · 지역 내 단체간 협업 지원 필요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우수 예술인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필요
	<p>결정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모사업 선정 후,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공연의 경우 재단 기획 공연 상연, 전시의 경우 기획전시 운영 등 재단 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· 기존 신진 예술가 공모에 연령 제한이 있음에 따라 신진과 청년 구분 · 공모 이후 성과보고회 운영 등 신진·청년이 네트워킹 하고 개선점 도출 및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
<p>장애예술 지원 및 기반 마련</p>	<p>주요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예술 공모 트랙 개발 필요 · 장애예술 관련 전담 부서나 5~10년간 장기 계획 개발 필요 · 장애 예술인 데이터 축적 필요 · 4월 장애인 주간 행사에 시·재단·장애인 연합단체에서 행사 진행 검토 · 장애인 주간에는 장애인 공연으로 기획공연이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 · 공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필요 · 장애인 공모 트랙 신규 추가가 바로 어렵다면 장애인 가산점 부여 등 긴급대책 마련 시급 · 기존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장애예술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장애예술인 행사를 추진할 경우 논란 발생 여지 있음
	<p>결정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 예술인 전수조사 추진 · 장애인에 대한 공모 가산 혜택 도입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진 예술 관련해서 나이 등 장벽 있음 · 대관료 지원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이 대부분이고, 전시분야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· 현재 재단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10%인데, 신진 팀들의 경우 10%를 납부하기 쉽지 않음 · 자부담 완화(5%) 방안도 시민 협의체에서 다뤘으면 함 · 예술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술인간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
<p>기타 의견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진 예술 관련해서 나이 등 장벽 있음 · 대관료 지원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이 대부분이고, 전시분야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· 현재 재단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10%인데, 신진 팀들의 경우 10%를 납부하기 쉽지 않음 · 자부담 완화(5%) 방안도 시민 협의체에서 다뤘으면 함 · 예술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술인간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

□ 생활예술 분과 회의결과(2023. 6. 15. 14:00 생활문화창작소)

구분	내용	
<p>공공 공간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확대 방안 논의</p>	<p>주요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예술인 공간 대상 시티투어 형식 운영 ※화성예술플랫폼 동일사업 · 우리꽃식물원 같은 공간에서 전시와 연계해도 좋을 듯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합창단 창단 후 연습 공간 부족 · 시민을 위한 공간에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없음 ·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(야외시설) 필요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아트스페이스의 경우 재단 운영 기획전으로 주로 운영 · 재단의 기획전시를 줄이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세부적인 해결방안 제시 필요 · 시민대학, 구 양감면사무소 등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필요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존 공간에 대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야기 했으면 함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휴공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관 조건과 현황 파악 필요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봉담도서관 같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우선으로 하여 남는 공간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했으면 함 ·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 중에 숨어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됨
	<p>결정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민대학, 도서관, 양감면사무소, 봉담 소방서 자리 등에 대한 현황 파악 · 공원관리과 운영에 대한 규정 검토
<p>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드는 문화공간 맵 논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플랫폼 많이 개발되어 있음 ·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는 플랫폼에도 사립공간을 등록할 수 있음 ·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통합정보 제공 필요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 공간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공공에서 지원받아 운영되는 민간 공간이 생각보다 많음 · 공간과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발전해야 함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단에서 이미 예술플랫폼이나 예술인 DB 활성화 되어 있음 ·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연결 필요 	
<p>기타 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예술인 기반 및 활성화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	